

복제인간이라는 노뭍(novum)에 대하여

: 불평등의 귀환에 대응하는 SF의 상상력*

곽은희**

〈차 례〉

1. 들어가며
2. 불평등의 기원: 공유지의 사유화와 강탈의 기술
3. 불평등에 맞서: 약한 자의 저항과 공동 운명의 복원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계급적 관점의 보완이라는 다르코 수빈의 통찰을 유효하게 받아들여, SF 영화 〈레플리카(Replicas)(2018, 미국)〉와 〈아일랜드(The Island)(2005, 미국)〉를 분석하면서 불평등의 귀환에 SF의 상상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영화에서 복제인간이라는 노뭍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에 대해 세심한 논평과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novum)은 자본주의 리얼리즘 시대, 불평등의 귀환을 서사화하는 중심축이자 자본주의의 존재조건을 탈신화화하는 변화의 동인(動因)이다. 두 영화에서 복제인간이라는 노뭉은 인간 뇌복제 기술을 통한 영생의 실현(<레플리카>), 장기 이식을 통한 불치병 치료,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외부화(<아일랜드>) 등 미래 사회의 변영이 복제인간이라는 생물학적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타자화에 기반하고 있음을 포착하고, 불평등에 맞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과 연대를 서사화하는 데 지배력을 행사한다. 공유지의 종획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룩한 계급 진보의 후퇴였다면, 복제인간을 통해 SF가 보여주는 약한 자의 저항과 자유의 탈환은 자본주의 리얼리즘 시대, 계급 진보의 후퇴를 거슬러 올라가는 대안적 상상력의 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적 상상력을 통해 고갈과 소모의 느낌에 잠식되지 않고 그 나머를 사유할 수 있다.

주제어: SF, 복제인간, 노뭉, 불평등, 자본주의 리얼리즘, 상상력, 공유지

1. 들어가며

인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착취당하고 지배받는 노동계급과 결합된 가치체계 안에서만, 즉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만, 가능하다.¹⁾

프레드릭 제임슨이 오래 전에 분석한 대로 “후기 자본주의의 붕괴를 상상하는 것보다 지구와 자연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쉬

1) 다르코 수빈 지음, 문지혁·복도훈 옮김, 『낮설게하기와 인지』, 『자음과 모음』 30, 2015. 12, p. 328.

운”²⁾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인류가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대안들이 있었던 1980년대와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지평을 자본주의가 빈틈없이 장악한 이래 우리는 고갈의 느낌, 문화적·정치적 불모의 느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³⁾ 만약 이러한 고갈과 불모의 느낌이 지금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정서라면, 작가의 경험적 세계 대신 상상의 세계 속에서 ‘가능한 대안들의 지도를 제작하는’⁴⁾ SF는 우리 시대에 대한 정치적인 성찰의 한 양식으로 다가온다.

지금 이 시대가 자본주의에 의해 빈틈없이 장악되었다는 고갈과 불모의 느낌은 SF 장르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다르코 수빈은 「낯설게하기와 인지(Estrangement and Cognition)」(1979)에서 SF를 ‘인지적 낯설게하기의 문학’이라고 정의하여 SF의 고유한 특성을 문학적 전통 안에 위치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르코 수빈의 설명에 의하면 SF는 ‘과학(science)’의 다른 이름으로 ‘인지’, 특히 ‘인지적 비판(cognitive critic)’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 현실을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 역동적 변화를 지향하도록 추동하며, ‘소설(fiction)’의 다른 이름으로 ‘낯설게하기’를 통해 사물과 세계를 창조적으로 바라본다. ‘인지’와 ‘낯설게하기’라는 두 축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SF는 경험적 현실보다는 미래세계의 창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화, 즉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역사적 잠재력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⁵⁾ 다르코 수

2) Fredric Jameson, *The Seeds of T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xii.

3) 마크 피셔는 이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존립 가능한 정치·경제 체계일 뿐 이제는 그에 대한 일관된 대안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널리 퍼져 있는 감각”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고 지칭한다(마크 피셔 지음, 박진철 옮김, 『자본주의 리얼리즘: 대안은 없는가』, 리시울, 2021, pp. 11-21).

4) 다르코 수빈 지음, 문지혁·복도훈 옮김, 앞의 논문, p. 323.

빈은 같은 글의 2014년 후기에서 ‘인지’의 정의를 대폭 수정하는데, 이때 핵심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계급적 관점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상 거의 완성된 디스토피아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실제적인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이 계급적 관점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다. 다르코 수빈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1960년대에 내가 쓴 글을 돌아보니, 내 ‘과학소설 시론’의 가장 큰 한계는 순진하고도 소박한 형식주의적 관점”이라고 회고한다. “역사의 물결이 다소간의 역류가 있더라도 사회주의나 민주주의적 공산주의를 향해 흐르고 있다고 미리 가정했고, 그 물결 속에서 이해와 즐거움, 그리고 형식에 문제들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르코 수빈은 “그때 마르크스는 너무 적게 다루어졌다는 데 초점을 두어 ‘인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결코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착취당하고 지배받는 노동계급과 결합된 가치체계 안에서만, 즉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미국-서유럽-일본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안에 부가 불균등하게”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려 사항 중 핵심 요인으로 지나간 계급투쟁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⁵⁾

다르코 수빈이 인식한 바와 같이, 허구적 낯설게하기와 같은 형식의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었던 70년대의 상황과는 달리 90년대 이후 우리는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팽창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세계개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최상위 1퍼센트 부자들이 하위 50퍼센트에 속한 사람들보다 2000배나 부유

5) 같은 논문, pp. 310-324.

6) 「낯설게하기와 인지」 2014년 후기에 대해서는 다르코 수빈 지음, 문지혁·복도훈 옮김, 앞의 논문, pp. 327-329 참조.

하다.⁷⁾ 또한 2008년 기준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생활수준 격차는 90배가 넘는다.⁸⁾ 가장 수입이 많은 계층과 바닥 사이의 경제 규모 격차는 1차 산업혁명 이후 최악이며, 2017년 세계 최고 부자 여덟 명은 하위 50퍼센트와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다.⁹⁾ 신자유주의화가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¹⁰⁾임을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귀환은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계급 권력의 복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맥락으로 판단하건대, 다르코 수빈이 ‘착취당하고 지배받는 노동계급과 결합된 가치체계’를 ‘인지(cognition)’의 유일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계급적 관점을 보완한 다르코 수빈의 통찰을 유효하게 받아들여,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계급 권력의 복귀 및 불평등의 귀환에 SF의 상상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SF 영화 가운데 ‘복제인간’을 주제화한 〈아일랜드(The Island)(2005, 미국)〉, 〈레플리카(Replicas)(2018, 미국)〉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복제인간’은 작품 속의 ‘노뭉(novum)’에 해당하는 것으로, SF에서 보여주는 낯선 세계가 허무맹랑한 공상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변혁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준다. 여기서 ‘노뭉’이란 텍스트의 세계에 도입된 새로

7)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안규남 옮김,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2013, pp. 18-19.

8) 프랑수아 브르기농 지음, 류형식 옮김,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문제』, 소와당, 2017, pp. 47-50.

9) 로지 브라이도터 지음, 김재희·송은주 옮김, 『포스트휴먼 지식』, 아카넷, 2022, pp. 145-146.

10) 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7, p. 36.

움을 의미하는 용어로, 텍스트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이다. SF에서 문학적 성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적 낯설게하기’는 ‘노뭉’을 통하여 그 효과를 성취한다.¹¹⁾ 〈아일랜드〉와 〈레플리카〉에서 복제인간이라는 ‘노뭉(novum)’은 오로지 영화적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낯설고 새로운 존재라는 점에서 현실의 경험적 세계와 변별되는 중대한 차이이자 자본주의 리얼리즘 시대 불평등의 귀환을 서사화하는 중심축이며, 자본주의의 존재조건을 탈신화화하는 변화의 동인(動因)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주요 논점으로 삼는다. 첫째,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계급 권력의 복귀 및 불평등의 귀환에 대응하여 복제인간이라는 노뭉을 통해 SF가 제기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문제는 SF가 동시대를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2장에서 불평등의 기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신자유주의는 생산성 증대를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대신 강탈에 의한 축적을 통해 대중에서 상위계급으로, 혹은 취약 국가에서 부자 국가로 자산을 이전하고 부와 소득을 불균등하게 재분배한다.¹²⁾ 강탈에 의한 자본축적의 과정의 중심에 민영화·상품화·탈규제화와 같은 사적 소유의 확대 문제가 놓여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제인간의 기원에는 유전자 공유지의 사유화 문제가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장에서는 복제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룬 영화 〈레플리카〉를 독해하면서, 불평등의 기원에 자리잡은 ‘유전자 공유지의 사유화와 강탈의 기술들’을 분석한다.

둘째, 자본주의에 의해 빈틈없이 장악된 신자유주의 시대, SF는

11) 세릴 빈트 지음, 전행선 옮김, 『엘스에프 에스프리: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arte, 2019, p. 67.

12) 데이비드 하비 지음, 임동근·박훈태·박준 옮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2010, p. 67.

어떻게 현실이 텍스트 바깥에 멀찍이 무기력하게 존재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미적행위¹³⁾를 표현하고 있는지 복제인간이라는 노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문제는 SF가 대안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3장에서 불평등에 맞서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신자유주의에서 부의 창출이 중심부 국가에 의한 주변부 국가의 탈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서 불치병 치료를 비롯한 수명 연장 등 유전적 불평등은 복제인간의 생명 탈취를 경유한다. 3장에서는 복제인간들이 이전과는 다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영화 <아일랜드>를 독해하면서, 유전 자원의 사유화 및 상품화 과정에 수반되는 불평등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맞서는 ‘약한 자의 저항과 공동 운명의 복원’을 분석한다. 영화 <레플리카>가 유전자 공유지라는 공공 자산이 거대 기업의 이익과 특권계급의 독점을 위해 강탈당하는 과정을 문제시켰다면, 영화 <아일랜드>는 강탈당한 약한 자의 저항과 하위 주체들 간의 연대를 보여준다. 따라서 동시대를 비판적으로 숙고하면서도 대안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SF의 특성은 이 두 편의 영화를 함께 독해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불평등의 기원: 유전자 공유지의 사유화와 강탈의 기술

자연에서 공동의 것, 지적 재산에 의해 사유화된 공동의 것, 유전공학의 공동의 것. 이를 위해, 오직 이것만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공산주의는 확실히 실패했지만 공동의 것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¹⁴⁾

13) 프레드릭 제임슨 지음, 이경덕·서강목 옮김,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민음사, 2015, p. 101.

제프리 나크마노프 감독의 영화 <레플리카>는 신경과학자 윌리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은 가족들의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죽은 이를 ‘살게 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인간적인 절실함을 부여한다. 그러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거액이 든 가방을 들고 자신의 레플리카를 만들기 위해 거대 기업 바이오닌을 찾아오는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가 생명 재건의 절실함보다 인간이라는 자연이 발명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보장을 통해 개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던 지난 시대와는 달리 사적 소유를 통해 개개인의 위험을 해소하도록 장려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풍경과 함께 독해해 보면,¹⁵⁾ 이 장면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란 자연적 수명 역시 사적 소유의 규모에 따라 가차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시대의 도래를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윌리엄은 마인드 업로딩 기술로 대표되는 인간 뇌복제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로 바이오닌의 재생산 기술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마인드 업로딩 기술의 성공이 군인, 사고희생자, 치매환자 등 인간의 삶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인간과 기계의 하이브리드 과정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 실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기억을 비롯한 일체의 정신 세계를 데이터화하여 기계 신체에 업로딩하는 인간 뇌복제 과정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명에 대한 상상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뇌를 시각화하는 홀로그램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가운데 뇌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보며 인지과정 전반

14) 슬라보예 지젝 지음, 주성우 옮김, 『멈춰라, 생각하라: 지금 여기, 내용 없는 민주주의 실패한 자본주의』, 와이즈베리, 2012, p. 11.

15)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심세광, 전해리, 조성은)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4, pp. 216-217.

을 능숙하게 조작하는 신경과학자 윌리엄의 모습에는 “생물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자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서 정해진다”¹⁶⁾는 생물학적 통제 시대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여행을 떠나던 날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로 교통사고를 당한 윌리엄은 눈앞에서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되는 불행을 겪지만, 생물학적 통제 시대의 믿음을 구현하고 있는 과학자답게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내와 아이들을 살려내는 편을 택한다. 그는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이용하여 가족들의 기억을 데이터화하여 기계 장치로 업로드시킨 후, 인공 배양한 신체에 다운로드하여 죽은 가족과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기로 한다.

그러나 영화는 생물학적 통제 시대, 자연을 지배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신적인 능력이 실현되는 광경을 보여주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기술 향상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영화가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되살려내야 할 가족들이 4명이지만 클론의 신체를 배양할 수 있는 포트가 3개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노인이 휠체어를 탄 채 거액을 들고 바이오닉을 찾아오는 장면은 생물학적 통제 시대가 도래한 이후, 기술 향상과 그것의 사회적 실현 사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계급적 문제를 짐작하게 한다. 기술 향상은, 생명 복제기술을 통해 죽은 가족을 되살리는 신경과학자 윌리엄의 경우처럼 수명 연장과 불멸에 도달하는 길을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민주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래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제임스 휴즈는 기술 향상을 긍정하되 그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민주적 트랜스휴머니

16) 니콜라스 로즈 강연, 김명진 옮김, 「생명 자체의 정치를 위하여 -21세기의 생명정치」, 김환석 편저,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알렙, 2014, pp. 24-25.

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여기서 민주적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과 민주주의를 통해 인간의 자기-해방 다음 단계를 이룩하고자 하며, 평등·연대·공동안전에 대한 우려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따라서 인간 강화 기술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강화 기술을 민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¹⁷⁾ 민주적 트랜스휴머니즘의 견지에서 바라볼 때, 영화 <레플리카>는 기업 권력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과학과 민주주의의 결합을 대신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이 문제를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보면, 이는 국가가 ‘탈규제화’라는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후퇴하여 생명 가치에 대한 결정을 과학과 상업적 이해관계의 영역에 맡기는 일련의 위험¹⁸⁾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위험은 시장의 상황을 유일한 게임 규칙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신자유주의의 전략¹⁹⁾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레플리카>에서는 마인드 업로딩 연구와 실험이 바이오 기업 바이오닌의 투자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뇌복제와 관련한 핵심기술이 바이오 기업 바이오닌에 의해 강탈되는 과정을 통해서 환기된다. 차크라바르티 미생물 특허권 허용 판결²⁰⁾에 의하면 윌리엄이 만든 복제인간은,

17) James Hughes, *Citizen Cyborg: Why Democratic Societies Must Response to the Redesigned Human of the Future*, Cambridge: Westview Press, 2004, p. 187.

18) 김환석,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환석 편저, 앞의 책, p. 63.

19) 피에르 다르도·크리스티앙 라발 지음, 오토르망(심세광·전혜리) 옮김, 『새로운 합리성: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에세이』, 그린비, 2009, p. 452.

20) 생명공학이 자본주의적인 정치경제 구조와 불가분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사업형태가 된 것은 1980년 대법원에서, 유출된 원유를 분해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된 미생물에 대해, 특허권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비록 그들이 되살아난 가족이라 할지라도, 생물특허권이 적용되는 바이오닉의 사유재산에 해당이므로 존스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대상이다. 신체를 포트에서 인공 배양하여 재건한 후 죽은 가족들의 마인드를 다운로드하는 등,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제반 과정에서 생명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바이오닉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 사적 소유물로 변환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존스: 실험체 346, 347, 348은 바이오닉의 재산이야. 절망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해주기도 하지. 그 사고는 운명이었어. 어떻게 하나 지켜봤지. 아주 훌륭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아니 세 개지. 이 말이 밖으로 새면 어떻게 될지 알아?

윌리엄: 알릴 필요 없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존스: 모나가 알아. 조만간 소피와 멧도 알고 캐묻지 않겠어? 친구들에게도 말할 거야. 거짓말은 점점 복잡해져. 우리 업계에선 복잡하면 위험하지. 단순해야 안전해. 저 실험체 셋을 이대로 둘 순 없어.

윌리엄: 345번을 성공시킬 방법을 알아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바이오닉은 세계 최고의 생체의학기업이 될 거예요.

존스: 윌리엄 생각을 좀 해봐. 누가 다친 군인들에게 이런 거액을 쓰겠나? 정신 차려. 그런 식으로 전쟁에 이길 수 없어.

윌리엄: 우린 생체의학회사 아닌가요?

존스: 내 이름도 존스가 아니야. 인간 의식을 기계 속에 넣는 방법을 알아냈다면 수천 대의 무인기 속에 일류 파일럿을 넣거나 바이러스에 해커의 정신을 넣을 수도 있겠지. 가치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되나? 빌, 들뜨지 않아?

윌리엄: 내 가족들은요?

존스: 자네 가족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알고리즘을 내놔.²¹⁾

이후부터이다(카우시크 순테르 라잔 지음, 안수진 옮김, 『생명자본: 게놈 이후 생명의 구성』, 그린비, 2012, p. 21).

21) 영화 <레플리카> 00:13:19~00:15:00.

차크라바르티 미생물 특허권 허용 판결 이후 현실세계에서는 생명공학과 자본주의 간의 상호구성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반해, SF의 상상력은 복제인간이라는 노뭉(novum)을 통해 익숙해진 현실 세계와 낯선 거리를 창조하여 생명공학과 자본주의 간의 상호구성성이 심화되는 과정을 거슬러 올라간다. 생물특허권을 요구하는 거대 기업에게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강탈당하고 마는 신경과학자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서사를 부여하는 것도 그 과정을 역으로 읽어내기 위해서이다. 복제인간들을 ‘실험체 346, 347, 348’로 호명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존스의 행위가 가족을 납치하려는 협박이나 다름없이 강제적인 강탈 과정으로 그려지는 것은 기술 진보의 낙관적인 전망을 상쇄하는 재난 가능성, 즉 기술 향상의 결과가 테러리스트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오용되었을 경우 야기될 위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바이오닌의 주장인 존스는 세계 최고의 생체의학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윌리엄의 기대를 비웃으며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 “수천 대의 무인기 속에 일류 파일럿을 넣거나 바이러스에 해커의 정신을 넣는” 등 전쟁 수행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통보한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향상이 인류의 미래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신경과학자의 오랜 믿음이 배반당하는 순간이다.

영화가 남은 러닝타임을 바이오닌의 부당한 강탈에 맞서 과학자와 그 가족들이 도망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할애하는 것은 과학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할 것이라는 믿음의 배반에 상응하여, 현실에서 견고해지고 있는 생명공학과 자본주의 간의 상호구성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의 간극에서 영화는 유전자 공유지의 특허권과 같은 ‘공유재의 종획(enclosure of commons)’을 중심 주제로 부상시키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강탈의 기술들을 포착한다. 수십 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정보, 아이디어, 동물이나 식물의 종들을 사유재산으로 만들면서 공통적인 것들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것

은²²⁾ 후기 자본주의 시대,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일찍이 분석한 대로 자본주의는 파소 소비를 비롯한 자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자본주의적인 ‘외부’를 필요로 하지만,²³⁾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로 조직된 후기 자본주의적 상황에서는 비자본주의적인 ‘외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공간적 조정(spatial fix), 즉 자본주의적 관계로부터 자유롭던 공간에 자본을 이식하는 방법을 선택한다.²⁴⁾ <레플리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전자 공유지의 사유화’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 자본의 위기를 해결할 외부를 찾는 대신 자본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내는 ‘공간적 조정’을 나타낸다. <레플리카>는 이러한 공간적 조정에 폭력과 강탈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래 사회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담아낸다.

비록 공유지의 삶은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공유지는 약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토대였다. 영국 국왕 헨리 3세가 삼림헌장에서 왕과 귀족의 독점권을 제한하고 자유민들에게 삼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근본적으로 약자들의 생계자급권 보호와 관련이 있다. 숲에서의 생계자급 보장, 이를테면 숲을 개방하여 가축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관습에 따라 숲에서 딸감, 꺾은 가지 등 연료 및 벌꿀과 열매를 채취하도록 하거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서도 마

22) 안토니오 네그라·마이클 하트 지음,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 2014, p. 17.

23)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는 자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자본주의적인 ‘외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제국주의를 유추하였다. 제국주의는 비자본주의적 환경을 가진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독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자본 축적 과정의 정치적 표현인 동시에 자본의 존재를 연장하는 역사적 방식이다(로자 룩셈부르크 지음, 황선길 옮김, 『자본의 축적Ⅱ』, 2013, 지식을만드는지식, pp. 732-733).

24) 데이비드 하비 지음, 강윤희 옮김,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선순환, 2021, p. 204.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더 궁핍한 처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²⁵⁾ 이처럼 삼립현장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공동체에서 과문당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로서의 숲을 인정한 계급 기반의 진보였음을 감안하면,²⁶⁾ 공유지가 배타적 사유재산권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관계가 그만큼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유전자 공유지의 사유화 문제를 독해해보면, <레플리카>는 유전자 공유지라는 공공 자산이 소수 거대 기업의 이익으로, 구매력을 갖춘 특권계급의 독점으로 이동하는²⁷⁾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닌의 수장 존스는 윌리엄의 복제된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동료 과학자 에드를 눈앞에서 살해하는 등 폭력과 위협을 가하여 마인드 업로딩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을 강탈한다. 존스의 협박과 감시 하에 놓인 윌리엄은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재현하기 위하여 자기자신의 마인드를 로봇 345의 기계 신체에 업로딩한다. 로봇의 기계 신체에 기억이 이식되어 되살아난 한 병사의 괴로움을 목격한 이후, 누군가에게 두 번 다시 그러한 괴로움을 겪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기자신을 실험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자신의 기억과 심성을 그대로 지닌 로봇 345의 도움 덕분에 바이오닌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윌리엄은 배양기가 부족하여 살려내지 못했던 막내 딸 조이(zoe)까지 복제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윌리엄의 이러한 성공은 개인적인 차원의 해결일 뿐, 복제인간이라는

25) 피터 라이보우 지음, 정남영 옮김,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갈무리, 2012, pp. 12-76.

26) 가이 스탠징 지음, 안효상 옮김, 『공유지의 약탈』, 창비, 2021, pp. 32-33.

27) 데이비드 하비 지음, 임동근·박훈태·박준 옮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2010, p. 69.

노뭉을 통해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에 대해 사회적·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영화 <레플리카>는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강렬하게 암시한 채 곧바로 엔딩을 맞이하는 편을 택함으로써 문제제기 자체에 무게중심을 둔다.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 거대 기업인 바이오닉에 귀속되어 있는 한 디지털 백업과 뇌복제 기술이 ‘영생’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향상된 기술에 대한 배분을 기업권력에 맡기는 한 인간 수명 연장과 불멸의 꿈은 또 다른 불평등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기업권력에 의해 강탈된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 인간의 남은 생을 연장해 주는 거래로 탈바꿈되는 장면은 유전자 공유지가 사유화되었을 때 도래할 디스토피아를 경고한다. 신경과학자 윌리엄의 기억과 심성, 기술이 모두 업로딩된 로봇 345의 존재, 그리고 결투 끝에 죽음에 이르렀으나 인간 복제 기술로 되살아난 존스의 존재는 영생을 위한 상업적인 거래가 영구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과거에 공유자원이었던 모든 것에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소수 부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존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빈곤의 상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레플리카>의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미래 역시 자본주의에 병합되는 새로운 영역에 불과하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이 글은 다음 장에서 영화 <아일랜드>를 소환한다.

3. 불평등에 맞서: 약한 자의 저항과 공동 운명의 복원

위협이 강하게 부과되는 경우 명시적인 동의와 순종이 겹으로는
우세할지 모르나 은밀한 저항 역시 증가한다.²⁸⁾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아일랜드>는 유전 자원의 사유화 및 상품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평등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불평등에 대응하는 문화적 상징의 하나로 약자의 저항과 하위계급 간의 횡단적 동맹을 서사화한다. <아일랜드>의 문제의식은 자연의 자본화 전략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자본주의적 해법에 의해 결정될 때, 생명 연장이라는 이상은 ‘다른’ 존재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생명 착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영화에서 복제인간은 애초에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진 까닭에 대리모가 되거나 장기 적출을 당한 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화가 그 자체 내에 광범위한 저항 문화를 산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²⁹⁾ <아일랜드>는 복제인간들이 자신들이 다른 존재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외부화되고 위계화된 존재임을 알아차리고, 이전과는 다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다룬다.

<아일랜드>에서 미래 사회는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던 야생의 세계로부터 복제가 그 과정을 대신하는 생물산업 세계로의 진입³⁰⁾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영화 속 미래 인류는 백혈병을 비롯한 불치병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간 게놈 해독을 통해

28)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후마니타스, 2020, pp. 194-195.

29) 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2007), 앞의 책, p. 212.

30) 제레미 리프킨 지음, 전영택·전병기 옮김,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2001, p. 24.

생명 유기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장기 이식을 통한 질병 치료, 피부 이식을 통한 노화 극복,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외부화 등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이룩한 새로운 업적은 수명 연장을 향한 오랜 염원을 실현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물산업 세계가 이윤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불가분하게 얽혀있음을 고려해 보면 <아일랜드>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구원의 불가능함이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전이 비록 인류에게 생명의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안겨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한 강탈을 담보로 힘 있는 소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 보편적인 번영을 이룩하는 데로 나아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기술 유토피아가 제공하는 낙관적인 청사진을 극대화하는 대신 복제인간이 처한 실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충실하게 드러내는 편을 택한다. 영화에서 복제인간은 탄생성(natality)³¹⁾이 훼손된 존재로서, “처음부터 고객과 같은 나이의 성인으로 배양”³²⁾되는 탓에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개개인의 고유한 역사를 지니지 않는다. 조던 2-델타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억이라고 믿고 있었던 어린 시절 추억도 사실은 복제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클론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메릭 연구소에서 주입한 기억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복제인간으로서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들은 만화·책·게임 등 순치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일체의 불온성이 차단되는 등 15세 정도의 지능에 머물도록 관리된다. 자신들이 오염된 지구로부터 낙

31)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인간은 ‘탄생’ 덕분에 각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세계의 무대에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있다(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6, p. 267).

32) 영화 <아일랜드> 00:51:30~00:51:36.

원 아일랜드로 탈출하도록 선택된 특별한 존재라는 ‘만들어진 서사’ 역시 욕망의 집단적 배치를 통해 이들을 유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복제인간들이 ‘아일랜드’를 욕망할수록 그들의 예측화된 상태는 더욱 공고화된다.

탄생성 훼손이나 규율화된 상태, 욕망의 집단적 배치가 복제인간들이 처한 실존적 조건이라면, 복제인간들의 저항은 그러한 실존의 불평등한 구조적 배치를 거부하는 일탈적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성된다. 예를 들어 복제인간 링컨 6-에코는 메릭 바이오테크사의 통제구역 계단에서 환풍구로 날아들어온 작은 벌레를 우연히 발견한 것을 계기로 오염으로 멸종했다고 믿었던 벌레가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지하 격리공간으로 날아든 작은 벌레는 복제인간을 지상의 비밀 의료구역으로 끌어 올리는 우연적인 요인으로, 복제인간들이 세계에 대해 “뭔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미세한 일탈을 촉발한다. 그것은 또한 바이오테크사의 지하 격리 공간이 은폐하고 있었던 중대한 진실, 이를테면 인간의 수명 연장과 복지 향상, 바이오 기업의 이윤 확장이 복제인간의 죽음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폭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진리 혹은 존재가 우연들이라는 외재성에 놓여 있음”³³⁾을 드러낸다.

링컨 6-에코: 벌레를 찾았어.

조던 2-델타: 벌레?

링컨 6-에코: 날아다니는 벌레야.

조던 2-델타: 보여줄래?

링컨 6-에코: 환풍구로 들어왔나봐.

조던 2-델타: 오염으로 멸종한 줄 알았는데.

33) 미셸 푸코 지음, 이광래 옮김, 『니이체, 계보학, 역사』,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민음사, 1999, p. 338.

링크 6-에코: 알라, 센서를 어떻게 통과했지?

조던 2-텔타: 작은가봐.

링크 6-에코: 아냐 작지 않아.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지? 또, 생존자들은 어디서 데려와?

조던 2-텔타: 그 사람들한테 잘된 일이잖아.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링크 6-에코: 뭔가 잘못되었어.³⁴⁾

링크 6-에코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일탈적인 에너지를 지닌 인물로, 평소에도 획일적인 생활방식과 반복되는 단순노동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 그는 복제인간들이 매일 하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정해진 식단을 따라야 하는 것 등 일체의 자율성이 박탈된 일상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는 오염되었다고 믿었던 지구에서 생존자들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아해하고 있던 터였으므로, 외부로부터 벌레가 날아들어오자 마음속의 의구심이 증폭된다. 유리병 속에 몰래 넣어둔 벌레를 꺼내어 그것이 날아가는 방향을 쫓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링크 6-에코는 예상치 않게 지상의 비밀 의료구역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그는 출산 후 아일랜드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리마 1-알과가 아이를 빼앗긴 채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는 또한 장기 적출 수술 직전 마취에서 깨어나 도망친 스타워드 2-텔타가 죽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지만 끝내 수술실로 끌려가고 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지상의 비밀 의료구역 발견을 계기로, 링크 6-에코는 ‘아일랜드’란 자신들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폭력적인 강탈 메커니즘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링크 6-에코가 탈출을 결심하고 감행하는 부분에서 중심이 되던 것이 미세한 일탈이 저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라면, 본

34) 영화 <아일랜드> 00:29:27~00:30:00.

격적인 탈출이 전개되면서부터는 그러한 저항이 어떻게 위로부터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둔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계획이 사실은 현대문명의 광기와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영화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고객의 주문에 맞추어 자동생산되는 인간 클론 배양 시스템을 원거리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재현하고 있는 광경은 고도로 발달한 현대문명이 어떻게 불평등의 구조와 합리적으로 공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푸코가 분석한 대로 인간 축적과 자본 축적 두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 확장을 위해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 두 과정은 ‘집단 다수를 효율증대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가속화시키는 규율 권력’에 의해 매개된다.³⁵⁾ 〈아일랜드〉에서 메릭 바이오테크사의 지하 격리 공간은 이러한 인간 축적과 자본 축적의 두 과정이 중첩되어 있는 곳으로, 복제인간에 대한 생명 탈취가 이윤 축적에 이를 때까지 복제인간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되 이들의 노동력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인간 클론 배양 시스템을 유지한다. 인간 클론 배양 시스템을 유지하는 전체 과정은 잘게 나누어져 분업화된 노동의 형태로 복제인간에게 할당되는데, 대량생산 라인에 적용된 규율권력은 복제인간들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을 탈취하는 데 기여하도록 만든다. 복제인간의 생명이 탈취되는 과정에 동원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현대문명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화면에 담는 데 효과적이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리마 1-알파에게 주사액을 주입하여 가장 짧은 시간에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면은 홀로코스트에서 대량 살상 방법들을 디자인하는 데 협력했던 과학³⁶⁾을 연상시킨다.

35) 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0, p. 320.

36) 과학은 가치중립이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도덕적 침묵은 과학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대량 살상 방법들을 디자인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다(지그

복제인간의 탈출은, 강탈에 기반한 자본 축적 방식의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그 내부에 광범위한 저항을 자극했던 투쟁을 상기시키면서³⁷⁾ 생명자본 세계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여 생물산업 세계로의 진입을 숙고하게 만든다. 특히 링컨 6-에코의 탈출로 인해 위기를 느낀 메릭 박사가 위기를 타개하고자 인간 클론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장면은 생물학적 통제 시대에 관해 도덕적 성찰을 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도덕적 통찰은 자기자신의 안녕에 대한 염려를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하는 윤리적 자기 이해와 결부되어 있을 때에만 효과적으로 의지를 구속한다.³⁸⁾ 다시 말해 자기자신의 안녕에 대한 염려가 정의에 대한 관심과 결부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삶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메릭 박사는 인간 클론 프로젝트를 홍보하면서 클론들이 “전부 영구 식물인간 상태로 배양되므로 의식이 없고 생각도 못하며 고통, 사랑, 증오의 감정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클론들이 “어디까지나 상품일 뿐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인간 클론 배양 과정을 합법화하고, 이를 토대로 윤리적 죄책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모든 기계처럼 낡는다”³⁹⁾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내세워

문트 바우만 지음, 정일준 옮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pp. 189-190).

37) 원시적 축적에 일련의 폭력적인 투쟁이 동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탈에 의한 축적에도 정치적·사회적 투쟁들이 뒤따랐다. 생물해적에 반대하는 농민운동, 유전자조작식품에 반대하여 토착 생산체계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투쟁들, 목재회사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삼림보호지역에 대한 원주민의 접근을 보존하고자 하는 싸움, 민영화에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들 등은 모두 강탈에 의한 축적에 반대하는 저항 운동들이다(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 『신제국주의』, 한울아카데미, 2005, pp. 156-160).

38)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장은주 옮김,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나남출판, 2003, p. 30.

39) 인간 클론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메릭 박사의 대사는 영화 <아일랜드> 00:51:21~00:52:30.

이윤을 취하되, 생명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탈취를 합법적인 과정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도덕적 성찰을 담보로 삼은 것이다.

거대한 생물산업 시스템에 부재하고 있는 도덕적 성찰의 행방은 생물-프롤레타리아로서의 쓸모를 다 한 뒤 버려질 운명에 처해 있던 복제인간들의 저항 과정에서 발견된다. 링컨 6-에코의 꿈속에 등장하던 보트 ‘레노바티오’가 원본인간 링컨의 기억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모든 계열의 클론들에게도 유사한 신경 이상 반응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메릭 연구소는 불량 클론들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린다. 복제인간들의 예기된 죽음에 동류의식(fellow-feeling)을 느낀 링컨 6-에코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메릭 바이오테크사의 지하 격리 공간으로 귀환한다. 링컨 6-에코는 조던 2-델타와 함께 원본인간 링컨의 요트 ‘레노바티오’를 타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인간처럼 살 수 있던 터였지만,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오직 계급만이 행위에 의하여 사회적 현실에 침투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변혁할 수 있다”⁴⁰⁾는 점에서 그의 귀환은 생물-프롤레타리아로서의 계급의식으로부터 연원하며, 자기 자신의 안녕을 넘어 정의에 대한 관심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성찰과 맞닿아 있다.

복제인간의 저항 과정에서 발견되는 도덕적 성찰은, 죽음 속으로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복제인간의 운명에 통각(痛覺)하는 흑인 용병 로렌트의 선화를 이끌어내면서 내면서 횡단적 동맹으로 발전된다. 복제인간과 흑인 용병 간의 횡단적 동맹은 차별과 배제의 역사 속에 살아온 하위 주체들 간의 연대야말로 자신들을 추격자

40) 죄르지 루카치 지음, 조만영·박정호 옮김, 『역사와 계급의식』, 지식올만드는지식, 2015, p. 83.

와 피추격자의 관계로 배치했던 ‘위로부터의 계획’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흑인 용병 로렌트가,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던 조던 2-델타의 손목에 새겨진 바코드를 본 순간, 자신의 몸에 새겨진 슬픈 역사를 떠올리는 장면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타자화되기는 마찬가지였던 존재의 동감(sympathy)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애초에 로렌트는 지하 격리공간을 탈출한 복제인간들을 추적하기 위해 메릭 박사에게 고용된 전투 용병이었지만, 한순간도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복제인간의 고통에 동감하게 되면서 그들의 저항을 돕는 쪽으로 선회한다. 그는 혁명에 동참했던 아버지가 죽자 사람들로 부터 손바닥에 뜨거운 낙인을 찍히는 슬픈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런 슬픈 이력을 지닌 까닭에 그는 고도로 발전한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결국 살인과 다름없는 인간 클론 프로젝트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로렌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메릭 박사는 생명의 창조를 통해 과학의 오랜 숙원을 풀었음을 자랑스러워 하며 클론들은 도구일 뿐임을 강조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학의 발전으로 백혈병과 같은 불치병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화는 로렌트의 정당한 분노가 “아래층에서 돈이나 받아가”⁴¹⁾라는 천대로 되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복제인간과 흑인 용병 간의 연대가 정의를 향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링컨 6-에코의 귀환과 흑인 용병 로렌트의 선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동 운명의 복원과 도덕적 성찰, 그리고 그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동류의식(fellow-feeling)은 SF 영화 <아일랜드>가 강탈에 의한 축적을 넘어 세상의 중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상상력의 핵심일 것이다.

41) 영화 <아일랜드> 00:52:30.

4. 나가며

이 글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믿음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SF의 사회적 면모에 주목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적 실존에 SF의 상상력이 대응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SF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관한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에 관한 경험을 재구조화하고 낯설게 하는 것⁴²⁾에 해당하며, 이러한 ‘인지적 낯설게하기’는 SF 속의 ‘노뭉(novum)’을 통해 수행된다. SF는 노뭉의 서사적 지배를 통해 현실을 낯설게 만들어 지각의 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동안 익숙해져 있던 현실을 재구조화하여 비판적 성찰과 숙고를 이끌어낸다.

〈레플리카〉와 〈아일랜드〉에 등장한 ‘복제인간’은 현실을 재구조화하여 세계에 대한 사유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노뭉 가운데 하나이다. 다르코 수빈에 의하면 노뭉의 인지적 혁신은 작가와 독자의 현실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현상 혹은 관계를 총체화(totalizing)하는 데 있다. 노뭉의 새로움은 총체화의 과정으로부터 유래하는데, 여기서 총체화란 이야기라는 우주 전체의 변화, 혹은 적어도 결정적으로 중대한 측면에 관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³⁾ 두 영화에서 복제인간이라는 노뭉은 생명 자본주의에서 신체 자본으로 물화되어 이윤의 회로 속에서 만들어지고 착취되는 존재를 형상화하는 가운데, 그러한 존재를 가능하게 한 현대문명과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조망을 이끌어낸다. 복제인간이

42) Fredric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London·New York: Verso, 2007, p. 286.

43) Darko Suvin, Edited by Gerry Canvan,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Literary Genre*, Bern: Peter Lang AG,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2016, p. 80.

라는 노뭉은 인간 뇌복제 기술을 통한 영생의 실현(<레플리카>), 장기 이식을 통한 불치병 치료,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외부화(<아일랜드>) 등 미래 사회의 변영이 복제인간이라는 생물학적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타자화에 기반하고 있음을 포착하고, 불평등에 맞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과 연대를 서사화하는 데 지배력을 행사한다.

복제인간이라는 노뭉은 또한 복제인간을 만들어낸 과학기술에 대한 회의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레플리카>에서 신경과학자 윌리엄의 변모는, 인간 존재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타자화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회의와 동요를 나타낸다. 애초에 윌리엄은, 심장마비로 죽음에 이르렀으나 로봇의 기계 신체에 마인드 업로딩되어 되살아난 병사가 자신이 누구인지 괴로워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막내 조이에 두 번 다시 관한 모든 기억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조이의 부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윌리엄은 인간이란 단순히 신체와 정신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윌리엄의 이러한 각성은 앞으로 인간의 영생이 거래가능한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로 인해 영생가능한 소수 계급의 특권이 불평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게 될 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 절실하게 대두할 것임을 암시한다.

복제인간이라는 노뭉으로 말미암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은 <아일랜드>에서도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링컨 6-에코의 꿈 속에 원본인간 링컨의 보트 ‘레노바티오’가 등장하는 상황이나, 링컨 6-에코가 운전에 능숙한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메릭 연구소의 추격을 따돌리는 상황은 원본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다. 복제인간은 원본인간의 신체를 복제한 후 인공 기억을 주입하여 만들어졌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원본인간의 기억과 능력을 지니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과학기술은 복제인간을 만드는 데 핵심 기술을 제공했지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 이에 비해 SF는 과학기술을 자양분으로 하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낙관적 믿음을 유보하고 진보와 발전에 수반된 불평등의 역사를 조망하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유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링컨 6-에코의 분노는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신체의 일부가 도구화된 복제인간의 존재 양태를 향한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복제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공학적 간섭의 결과 자연의 어떤 부분이 도구화되어 만들어진 존재인 탓에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자신의 동기를 따라 행위를 하고,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의도를 따른다는 모든 원천,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이 진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원천⁴⁴⁾이 모두 박탈된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링컨 에코-6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귀환을 감행하는 행위는 인간 존재에게 근원적인 자유의 탈환을 향한 것이다.

동료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고통을 느꼈던 링컨 6-에코와 죽음으로 내몰리는 복제인간의 처지에 통각했던 흑인 용병 로렌트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동류의식(fellow-feeling)은 신자유주의에서 구축된 각자도생 메커니즘을 넘어 공동운명의 복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지에서의 삶을 상기시킨다. 비록 복제인간은 유전자 공유지의 사유화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공동운명을 복원하는 복제인간의 저항과 하위주체간의 연대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 자급권을 보호하려 했던 공유지의 삶과 맞닿아 있다. 자신의 안락보다는 공동의 운명을 복원하기로 한 링컨 6-에코의 선택은, 사적 소유를 통해 개인들을 위험

44)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장은주 옮김, 앞의 책, pp. 100-102.

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자유주의의 각자도생 메커니즘과 반대 지점에 위치해 있다. 마그나카르타와 삼림헌장이 힘 있는 사람들이 빼앗은 공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보상의 현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⁴⁵⁾, 영화 <아일랜드>는 생물-프롤레타리아였던 복제인간들이 공동의 운명을 복원하고자 하는 저항 과정을 서사화함으로써 유전자 공유지의 사유화 시스템의 붕괴를 꾀한다. 공유지의 중핵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룩한 계급 진보의 후퇴였다면, SF가 보여주는 약한 자의 저항과 자유의 탈환은 불평등이 귀환하는 자본주의 리얼리즘 시대, 계급 진보의 후퇴를 거슬러 올라가는 대안적 상상력의 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공동운명을 복원하고 공유지의 삶을 회복하는 대안적 상상력을 통해 고갈과 소모의 느낌에 잠식되지 않고 그 너머를 사유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제프리 나크마노프 감독, 영화 <아일랜드(The Island)>, 2005.

마이클 베이 감독, 영화 <레플리카(Replicas)>, 2018.

2. 논문

김환석,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환석 편저,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알렙, 2014, pp. 53-83.

니콜라스 로즈 강연, 김명진 옮김, 「생명 자체의 정치를 위하여 -21세기의 생명정치」, 김환석 편저,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알렙, 2014, pp. 15-51.

다르크 수빈 지음, 문지혁·복도훈 옮김, 「낯설게하기와 인지」, 『자음과 모음』 30, 2015. 12, pp. 308-329.

미셸 푸코 지음, 이광래 옮김, 「니이체, 계보학, 역사」, 『미셸 푸코: <광기의

45)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공유지의 약탈』, 창비, 2021, p. 422.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민음사, 1999, pp. 329-359.

3. 단행본

- 가이 스탠징 지음, 안효상 옮김, 『공유지의 약탈』, 창비, 2021.
- 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 『신제국주의』, 한울아카데미, 2005.
- _____ 지음,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7.
- _____ 지음, 임동근·박훈태·박준 옮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2010.
- _____ 지음, 강윤희 옮김,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선순환, 2021.
- 로자 룩셈부르크 지음, 황선길 옮김, 『자본의 축적Ⅱ』, 지식올만드는지식, 2013.
- 로지 브라이도티 지음, 김재희·송은주 옮김, 『포스트휴먼 지식』, 아카넷, 2022.
- 마크 피셔 지음, 박진철 옮김, 『자본주의 리얼리즘: 대안은 없는가』, 리시울, 2021.
- 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0.
- _____ 지음, 오트르망(심세광, 전해리, 조성은)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4.
- 세릴 빈트 지음, 전행선 옮김, 『엘스에프 에스프리: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arte, 2019.
- 슬라보예 지젝 지음, 주성우 옮김, 『멈춰라, 생각하라: 지금 여기, 내용 없는 민주주의 실패한 자본주의』, 와이즈베리, 2012.
-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후마니타스, 2020.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 2014.
-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장은주 옮김,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나남출판, 2003.
- 죄르지 루카치 지음, 조만영·박정호 옮김, 『역사와 계급의식』, 지식올만드는지식, 2015.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안규남 옮김,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2013.
- _____ 지음, 정일준 옮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 제레미 리프킨 지음, 전영택·전병기 옮김,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2001.
- 카우시크 순데르 라잔 지음, 안수진 옮김, 『생명자본: 게놈 이후 생명의 구성』, 그린비, 2012.
- 프랑수아 브르가농 지음, 류형식 옮김,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문제』, 소와당, 2017.

- 프레드릭 제임슨 지음, 이경덕 · 서강목 옮김,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민음사, 2015.
- 피에르 다르도 · 크리스티앙 라발 지음, 오토르망(심세광 · 전혜리) 옮김, 『새로운 합리성: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에세이』, 그린비, 2009.
- 피터 라이보우 지음, 정남영 옮김,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갈무리, 2012.
-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 · 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6.
- Darko Suvin, Edited by Gerry Canvan,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Literary Genre*, Bern: Peter Lang AG,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2016.
- James Hughes, *Citizen Cyborg: Why Democratic Societies Must Response to the Redesign Human of the Future*, Cambridge: Westview Press, 2004.
- Fredric Jameson, *The Seeds of T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Fredric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London · New York: Verso, 2007.

(투고일: 2023. 2. 15 심사완료일: 2023. 3. 20 게재확정일: 2023. 3. 22)

곽은희

소 속: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전자우편: keh100@dau.ac.kr

[Abstract]

About Novum, the cloned human

: SF's Imagination Responding to The Return of Inequality

Kwak, Eun-Hee

In this thesis, I validly accept Darko Subin's insight on the supplementation of the class perspective based on Marxism, and then by analyzing the SF films <Replicas(2018, USA)> and <The Island(2005, USA)>, I looked at how SF's imagination responds to the return of inequality. In the two films, novum, a 'cloned human', is the central axis that narrates the inequality that is returning to the era of capitalist realism and the driving force of change that demythologizes the existence conditions of capitalism. In the two films, Novum, the cloned human being, recognizes the prosperity of the future society, such as the realization of eternal life through human brain cloning technology (<Replica>), the treatment of incurable diseases through organ transplantation, and the externalization of childbirth through surrogate motherhood (<Island>) is based on the otherization of the biological proletariat, the cloned human beings, and then exerts its dominance in narrating resistance and solidarity that can change reality against inequality. If the enclosing of the common lands was a setback of class progress achieved through a long history, such warnings and resistance by SF would be a form of alternative imagination that goes back to the era of capitalist realism in which inequality returns and the retreat of class progress. Through this alternative imagination, we can think beyond it without being eroded by the feeling of exhaustion and consumption.

Key words : SF, cloned humans, novum, inequality, capitalist realism, imagination, the commons